

제4회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 不刻의 균형

윤범모(2018'총감독/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1. 왜 불각의 균형인가

창원은 이름 높은 조각가를 배출한 '조각의 도시'이다. 김종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빛나는 조각가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은 '창원 조각'의 특화를 강조할 당위성을 갖게 한다. 그래서 창원은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로 부상되었다. 창원 작가 가운데 대표작가로 김종영과 문신을 들 수 있다. 김종영은 문인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독자적 예술세계를 남겼다. 그의 작품은 '불각(不刻)의 미학'이라는 키워드로 집약 할 수 있듯, 비균제의 형태로 자연스러운 독자성을 수립했다. 반면 문신은 균제, 대칭, 조화,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집약 할 수 있는 작업을 남겼다. 같은 추상 계열의 작품이면서, 이들의 대칭/비대칭, 균형/불균형 등의 조형적 특성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집약시키면서, 조각의 의의를 반추하게 한다. 이에 창원 조각의 정체성(正體性) 특히 김종영과 문신의 예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작가의 예술적 키워드를 이번 비엔날레의 기치로 삼고자 한다. 바로 '불각'과 '균형'이 그것이다.

불각의 균형은 (The Balance of Non-Sculpting)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각은 자연스런 상태에의 추구이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추구하게 한다. 무위(無爲)라 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깎기는 깎지만 깎지 않은 것 같은 상태, 자연즉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 바로 불각의 의미이다. 불각은 원초성 혹은 자연스러움을 지향하고, 균형은 모순과 질곡의 사회에서 상호 균제를 지향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자연성과 인공성 혹은 정신성과 형식성 등의 개념을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고려하게 한다. 물론 미술에 있어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경우에 따라 이들 개념의 경중은 있을 수 있으나, 형식과 내용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2018 비엔날레는 자연스러움의 조형성과 복잡한 현실의 사회성을 기본 축으로 하여 입체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담론 중심으로 엮고자 한다.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작업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참신성과 중량감이다. 형식의 측면에서 표현 매체와 방법의 확장을 주목할 것이고, 내용의 측면에서 담론 제시 즉 서사성 혹은 문제제기와 같은 작업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두 가지의 특성을 아우른 것이 바로 '파격(破格)'으로 귀결되리라 믿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술의 조형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을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각공원은 여타의 경우와 다른 차별상을 보일 것이며, 전시 역시 색다른 발언과 형식을 시도할 것이다.

전시 형식은 실외/실내, 즉 조각공원과 미술관 전시로 양분된다. 실외전시는 용지공원 포정사 앞에 '유어예(遊於藝) 마당'을 조성한다. 유어예는 공자의 말씀에서 빌려와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했다. 바로 '예술작품과 함께 놀기'이다.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은 '접근금지' 즉 '만지지 마시오'라는 주의사항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물론 작품 보존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특수

(觸手) 금지 조치를 취한다. 미술품은 송배의 대상으로 우러러 받드는 그 무엇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유어에 마당은 이와 같은 관행을 엮고, 대중에게 휴식과 놀이의 기능을 갖도록 안내했다. 한마디로 조각 작품 위에서 뛰어놀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앉아 쉴 수 있고, 누워 잠잘 수도 있다. 한마디로 조각 작품과 함께 놀기가 가능한 마당이다.

실내 전시는 성산아트홀,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원의집+역사민속관 등에서 펼쳐진다. 성산아트홀은 '파격(破格)' 주제의 다양한 재료와 형식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종영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창원의집 한옥에서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백남준 이후 대표적 비디오 작가의 작품은 선보인다.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펼쳐질 미디어 아트 향연은 흥미로울 것이다. 문신미술관은 문신 특별전을 비롯 뉴욕에서 활동한 김포(김보현)+실비아 왈드 부부작가 특별전, 그리고 안중연 팀의 미디어 아트 전시가 소개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미국, 독일, 벨기에, 루마니아, 중국 등 12개국 60여 작가의 2백여 점으로 펼쳐진다. 이들 작품은 모순적 개념 같으면서도 현대사회의 단면을 집약한 '불각의 균형' 혹은 '파격'에 대하여 발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주류 미술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재료와 표현형식 등을 조명한다. 평면작품의 경우, 머리카락, 소금, 프레스코, 한지 인화지 등과 같은 재료를 활용한 작업도 주목한다. 파격은 고정관념을 깨는 행위이고,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예술적 행동이다.

2. 遊於藝 마당- 예술작품과 함께 놀기

창원 용지공원 포정사 앞의 잔디마당, 이곳에 영구설치의 조각공원을 조성한다. 바로 이번 비엔날레의 중심축을 이루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조각공원의 개념 정리를 달리 시도했다. 즉 단순 조형물로서의 감상 차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관객은 작품과 거리를 두고 작품을 바라만 보아야 했다. 심한 경우는 작품을 종교적 송배물처럼 우러러 받들도록 강요당했다. 왜 미술품은 우러러 받드는 존재여야만 할까. '써먹는 미술' 즉 소비품으로서의 미술품이라면 어떨까. 하여 갖고 놀 수 있는 미술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 영구 설치하는 조각품이라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형물 즉 예술성과 더불어 기능성을 강조하면 어떨까. 의문은 계속 일어났다. 그래서 공자의 말씀 유어에(遊於藝)를 차용하여, '예술품과 함께 놀기' 그 이색공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 이는 거창한 개념도 아니다. 미술의 사회적 기능 가운데 효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작품 위에서 쉬거나 놀기. 유어에 마당은 놀이터 개념을 활용한 조각공원이다. 순수 조형물과 함께 기능성을 강조한 '유어에 마당' 즉 불각균형의 실체적 구현이다.

유어에 마당의 중심은 안중연의 설치작품 <아마란스(Amaranth)>이다. 12m x 12m 규모의 대작으로 형태는 아마란스 꽃이다. 조형적 아름다움과 함께 관객 참여의 기능성을 부여한 작품이다. 즉 꽃잎에 해당하는 원형 굴레 안에 역시 원형 평판을 두어 관객들이 쉬거나 놀 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벤치 역할. 관객은 꽃 대궐 안에서 즐길 수 있다. 작품의 특징은 이런 기능적 측면 이외 조명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꽃술 부분의 다채로운 빛깔 즉 LED 장치는 스스로 빛깔을 바꾸면서 꽃의 화려한 이미지를 자아낸다. 수시로 바뀌는 색채의 향연, 그것도 곡면의 색채 변화, 이는 근래 독일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활용이다. 곡면 LED 장치에 의한 화려한 색채 변화,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조형물이다. 특히 야간의 화려한 조명 기능은 가로등 이상의 상징성을 가져 용지공원은 물론 창원시의 상징적 조형물

로 주목받을 것 같다. 이는 유어에 마당의 개념을 제대로 살린 대형 설치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능성과 조형성 그리고 상징성까지 겸비한 점을 통해 이번 비엔날레의 성격을 검토하게 한다.

윤영석의 <심장유희(心臟遊戯)>는 스텐레스스틸 성형의 심장 모양의 조형물이다. 길이 약 10m 정도의 규모로 잔디마당에 길게 설치된다. 유어에 마당으로 나온 인간의 심장. 심장의 박동은 생명성의 상징이다.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심장 형태의 조형물. 작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설치 작업에 기능성을 부여했다. 즉 비스듬히 설치된 경사면을 이용하여 관객은 '돛자리'처럼 그 위에서 쉴 수 있고, 심지어 미끄럼틀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 감상용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작품과 일체 되어 쉬거나 즐길 수 있게 설계되었다. 심장 위에서 놀기. 또 다른 유어예의 경우이다.

조숙진의 <삶의 색채(Color of Life)>는 드럼통의 집적이다. 같은 형태의 드럼통 35개를 5단 높이로 쌓아 일견 사각형 구조이지만 그 안에서 균형과 조화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 드럼통의 구축은 약간 들쭉날쭉하여 나름대로 변화감과 참여 관객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단순 구조이지만 채움과 비움의 공간 변화를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 단순구조 작품은 영적(靈的)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기성품의 새롭게 보기. 즉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을 활용하여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기능성까지 부여했다. 드럼통구조는 시민의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별집 같은 각각의 드럼통을 출입하면서 놀 수 있고, 시민은 드럼통 안에서 쉬면서 독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낮잠을 잘 수도 있다. 이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특성을 보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불각의 균형' 프로젝트와 부합되는 작품이다. 조숙진은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작가이다.

구본주의 <비스킷 나눠먹기>는 청동주물 작품이다. 중년 남자 두 명이 서로 마주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비스킷을 나눠 먹는 장면의 조형물이다. 인물 두상의 사실적인 형상력은 돋보이는 부분이지만, 나눠 먹기의 스토리텔링을 보이면서 감상의 신선도를 자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인물 사이의 비스킷 즉 기다란 목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공원의 벤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자가 있을까. 유어에 마당을 방문하는 시민은 꼭 이 기다란 의자에 앉고 싶은 욕망을 떨쳐내기 어려울 듯하다. 구본주는 요절했지만, 한국 리얼리즘 조각의 대표적 작가였다. 그는 현실 비판과 사회 풍자적 작품을 다수 남겼다. 공원에서 만나는 리얼리즘 미술, 그것도 이색적인 인물 형상, 거기다 기다란 의자 형식의 작품, 주목을 필요로 한다.

임영선의 <불완전한 조각들>은 스테인리스스틸과 알루미늄 재료의 2m가 넘는 두상이다. 이 두상은 네 군데로 절단되어 관객은 두상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두상 안으로 들어가면 센서에 의해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상은 현대의 전형적인 중년 남성 모습이다. 하지만 4조각으로 나뉜 얼굴, 각각의 부분은 원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두상의 네 쪽은 인생의 생로병사, 희비애락, 그리고 춘하추동 사계를 의미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인생' 즉 사람의 일생을 집약한 것이다. 그래서 두상 내부에 들어가면 갖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부터 병원에 실려 가는 마지막 구급차의 사이렌까지,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소리가 담겨있다. 물론 소리 속에는 불교의 독경이나 찬

송가 같은 종교적 소리도 있다.

오채현의 <행복한 호랑이>는 붉은 화강석을 이용한 호랑이 형태의 작품이다. 호랑이는 앉아 있거나 서 있다. 호랑이는 우리네 민담이나 이른바 민화 속에서 즐겨 나오는 소재이다. 벽사초복(邪招福)의 존재이다. 그래서 '까치호랑이' 혹은 신선도에 즐겨 등장했다. 유어에 마당에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식 조형물로 오채현 작가를 선정했다. 한국 상징의 호랑이. 서울올림픽 당시 '호돌이'로 상징했던 우리의 호랑이. 이런 호랑이를 창원으로 모셔왔다. 어린이는 호랑이 조각의 등에 올라 탈 수 있다. 해학적 요소가 강하기도 하다. 이 호랑이 한 쌍은 용지공원의 수호신 역할을 하면서 전통의 현대적 변용의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흥미로운 조형물로 이이남의 <피노키오의 거짓말>을 들 수 있다. 거짓말을 많이 하여 코가 길어졌다는 피노키오. 원래 영상작업으로 명성을 떨친 이이남은 미대 재학 당시 조각 전공답게 이번에 조형물을 제작했다. 경쾌한 분위기의 피노키오는 어린이의 관심을 듬뿍 받을 것 같다. 이환권의 은 높이 12m의 장대 위에 설치된 인물이다. 원래 이환권의 <영웅>은 인체의 왜곡 즉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에 비친 인체 표현으로 유명했다. 홀쭉하거나 뚱뚱한 형태의 인체. 굴절되고 왜곡된 현대인의 상징성을 강렬하게 표현하여 주목받았다. 이번 <영웅>은 기다란 장대를 이용한 작업으로 공원안의 존재감을 보일 것이다. 재미작가 김청윤의 철제 작품<무제>는 단순 구조로 고독한 현대인의 초상을 연상시킨다. 인체의 기본은 골격이다. 즉 직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청윤의 작품은 직선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강한 인상을 자아낸다. 창원 작가의 경우, 공모를 통해 박영선과 백인곤의 화강석 작품이 영구설치 된다.

외국 작가의 경우, Wim Delvoye(웬 델보예)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벨지움 대표작가로 참여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정교한 디자인과 구조적 특징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철판 재료의 레이저 커팅에 의한 다양한 구조는 주특기이다. 그것도 트럭, 불도저, 시멘트 믹서 같은 바퀴가 있는 차량 형태는 눈길을 끈다. 바퀴는 인류문명 발달사에서 획기적 발명품으로 꼽혀 오고 있는 문명의 이기이다. 델보예는 이들 차량 형태에 정교한 문양을 넣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세밀하면서도 좌우 대칭에 의한 레이저 커팅 문양은 감탄사를 연발시킨다. 디자인 가운데 고딕 스타일은 신성과 세속의 상징성을 자아낸다. 그의 작품은 건축과 기계의 형식을 빌려 현대적 감성을 자아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번 영구설치 작품<콘크리트 믹서(Concrete Mixer)>는 델보예의 대표적 작품 계열로 현대 입체작품의 또 다른 면모라 할 수 있다.

미르치아 드미트레스쿠(Mircia Dumitrescu)는 루마니아의 대표 조각가이다. 그는 목조작업에 의한 인체형상을 즐겨 표현했다. 수도 부카레스트의 대표적 조형물이라든가, 특히 문학박물관 진열의 문인 초상작품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 현대작가 브랑쿠시의 예술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필자가 그의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작가는 부카레스트 미술학교를 안내하면서 로비에 설치되어있는 학창 시절의 브랑쿠지 인체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마니아는 목조건축 등 목조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설치작품브론즈 재료의 <남자>는 두 손을 앞으로 벌리고서 있는 입상이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서 단순한 구조여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작품 아담과 이브를 표현한 <아담과 이브(Couple)> 역시

흥미로운 작품이다.

울프강 스틸러(Wolfgang Stiller)는 독일 작가로 이색적인 작업을 보여준다. 설치작품<성냥개비 세 남자(3 Matchstick men)>는 브론즈 작품이지만, 형태는 성냥개비이다. 그것도 사용한 성냥개비여서 윗부분은 검게 탄 흔적이 있다. 문제는 검은 부분즉 성냥의 인화 물질 부분이 인간의 두상으로 표현되어 있음이다. 결국 성냥개비는 인체이고, 그곳도 발화하여 검게 탄 얼굴이라는 점이다. 이런 성냥개비 인간상이 군집하여서 있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면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기성품을 재해석하여 의미를 변화시키는 작업. 성냥개비 작업은 지쳐버린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타버린 모습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상징을 자아내기도 한다. 스틸러의 성냥개비 작업에서 중국 인형극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폴 샬레프(Paul Chaleff)는 뉴욕 거주 도조 작가이다. 그는 흙이라는 물성(物性)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추상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도(意圖, Intention)>는 어떤 '목적'을 보이는 단순 구조이다. 서 있는 두 구조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관객은 춤추는 모습, 씨름하고 있는 모습, 밀어를 속삭이는 연인의 모습 등 다양한 연상을 할 수 있다. 형식상 현대도조(陶彫)의 특성을 충실히 보여주는 작업이다.

3. 고정관념에 주석 달기- 본전시 <파격>

창작은 고정관념에의 도전이라는 숙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의 목 말음, 여기서 창작의 길은 열린다. 그래서 도전 의식은 돋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도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경에 태양 아래 새것은 없다고 했다. 인간의 창조행위는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주석(註釋) 달기 정도이다. 원문 그 자체를 흔들기보다 주석의 형식으로 이견을 점잖게 다는 정도이다. 그래서 품격을 지키면서 새로운 견해를 추가하기도 한다. 여기서 파격(破格)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고정관념에의 행동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은 파격의 길 즉 주어진 궤도로부터의 이탈을 꿈꾸면서 새로움을 추구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 달기 정도가 아니라 본문 자체를 철폐하기도 했다.

일월오봉 병풍은 조선왕조의 왕권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권좌 뒤에 일월오봉 병풍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권력. 조선왕조는 어떻게 이미지를 권력의 상징으로 활용했을까. 일월오봉도는 18세기 정조에 의해 파격으로 무너진다. 정조는 책가도를 용상 뒤에 설치했다. 학문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 궁정회화는 형식적으로 채색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 원색 숭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원색의 궁정회화는 점차 민간으로 퍼져 이른바 민화라는 형식으로 조선시대 말기의 대표적 장르로 발전되었다. 이들 작품의 특징은 형식적으로 채색화이면서 내용적으로는 행복추구의 길상화(吉祥畵)인 우리 민족의 국화(國畵)이다. 현대미술의 파격. 그렇다면 전통적 권력 상징이었던 일월오봉 병풍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는 불가능할까. 더군다나 파격을 주제로 내세운 전시에서의 파격은? 고민의 결과,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새로운 '주석'을 달기로 했다. 바로 일월오봉 병풍의 거꾸로 걸기이다. 발상법의 대전환이다. 전시공학의 이의제기와 같다.

일월오봉도는 하늘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고 그 아래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또 그 아래는 일렁이는 파도가 있다. 성산아트홀 첫머리에 거꾸로 선 일월오봉 6곡 병풍(오순경 작품)은 '파격' 전시의 상징적 도상이기도 하다.

<파격> 전시의 특성은 표현재료와 기법의 확장과 작품 내용에서의 담론 제시 혹은 이의제기이다. 불각과 균형이라는 상호 모순적 개념을 바탕으로 둔 새로운 시도에 방점을 찍고자 한 결과이다. 현대미술의 표현형식은 너무 다양하다. 여기서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이색적인 재료 활용을 주목하고자 한다. 주류 미술계에서 애용하고 있지 않은 표현재료,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황재형은 광부 화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리얼리즘 유화는 광산촌의 인간과 자연을 생생하게 담아 감동의 폭을 넓혀 왔다. 그런 유화가가 '생똥맞게'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렸다'. 태백의 미장원 등에서 수집한 머리카락으로 캔버스에 하나씩 부착 시켜 다양한 형상을 표현했다. 하얀 바탕에 검은 머리카락은 일견 수목화처럼 보인다. 얼마나 정교하게 머리카락을 부착시켰는지 그 기법과 공력에 놀랄 지경이다.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이다. 작가는 머리카락으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파격이다. <새벽에 홀로 깨어- 세월호 어머니>는 신라 최치원의 시에서 따온 제목 아래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 모습을 담은 것이다. <원이 엄마 편지>는 요절한 남편의 무덤에 넣은 조선시대 여성(원이 엄마)의 심금을 울리는 편지와 더불어 '부장품'으로 넣은 머리카락 신발을 표현한 작품이다. 머리카락이라는 재료로 작업한 배경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안종대의 <실상>은 고구마에 사람 얼굴을 조각하여 말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색적인 작업이다. 안종대는 설치작업으로 말린 식물을 비롯해 실, 솜, 쇠,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그는 금이나 은과 같은 비싼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변하는 흔한 재료를 선택한다. 변화과정을 주목하면서 작가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화두를 염두에 두게 한다. 임옥상의 <민들레 꽃씨, 당신>은 캔버스 위에 흙이라는 이색재료를 활용하여 그린 작품이다. 임옥상은 이미 땅과 흙이라는 재료를 주목한 바 있고, 특히 논바닥 위에서 작업하고 종이 부조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흙이라는 재료. 이번 작품은 배경을 생략하고서 있는 인물을 담은 작품이다. 김민정의 작품은 한지를 작은 원형으로 오려 그 가장자리를 태워 검은 선을 살린 것을 화면 가득 부착한 작업이다. 한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작품이다. 김민정은 단색조 분위기의 평면작업과 함께 유리를 이용한 입체작업을 겸한다. 측면에서 보면 빈 곳이지만 위에서 보면 원형 도상이 보이는 작업이다.

오원배의 <무제>는 판넬 위의 프레스코 작품이다. 유럽 미술의 특징을 보인 프레스코 기법. 작가는 프랑스에서 프레스코 기법을 수학한 후 귀국하여 다수의 프레스코 작품을 선보였다. 심지어 사찰에서 후불벽화를 서구식 프레스코 방법을 응용하기도 했다. 출품작은 작가 특유의 건축적 구조와 부유하는 인체를 한자리에 담은 작품이다. 임채욱의 사진 작업<인수봉>은 사진용 인화지 대신 전통 한지를 사용한 사진 작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화지와 달리 한지는 구길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 입체 부조작품처럼 설치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수봉은 서울 시내에서도 보이는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다. 우뚝 솟은 바위산, 수직 벽의 인수봉, 그 괴체감을 우둘투둘 입체감의 한지에 담은 독특한 사진 작업이다. 이 작

품은 작품 뒤에 스마트 조명을 설치하여 관객의 위치에 따라 음악 소리와 빛깔이 변한다.

정고암의 <삼죽오>는 벽면용 입체 설치작품이다. 원래 정고암은 석재를 활용한 조각작가였다. 그는 '새김미술' 운동을 펼치면서 조각 혹은 문자의 현대화 작업에 앞장섰다. 이번 작품은 조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문양과 조각 혹은 부착한 '세발 까마귀'의 태양을 상징했다. 사각기둥 형식의 부조 설치작품과 영상작품을 함께 출품한다. 송창의 <정원>은 아이론 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오브제를 부착했다. 분단의 상처를 즐겨 표현한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면서 화해의 굿마당을 담았다. 이주원의 <길에서 조우하다- 나의 집>은 한지에 아크릴로 도상을 만들고 그 후면에 LED를 장착하여 화면 색상의 변화를 도모했다. 한지와 조명의 조화이다. 작가는 평소 '집'에 관심을 두어, 특히 방랑자의 집을 주목했다. 이번 출품작은 몽골의 천막집과 같은 형태의 도상에 색깔을 넣어 변화감을 부여했다.

김태은은 미술재료로 익숙하지 않은 소금을 활용한 이색 작업을 보인다. 소금은 '소금에 절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존의 의미, 또 청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태은은 소금만 가지고 안중근 초상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이미지를 만든다. '소금 초상화'는 이색 작품이다. 하태범의 알루미늄 재료의 부조 작업으로 사회성 짙은 주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다. 백승수는 스티로폼을 활용하여 도상을 만드는 이색재료 활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광화의 작품은 석고가루의 분진 형태 위에 석고 미니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설치작업이다. 이들 석고 가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굳어가고, 미니카는 부서진다. 이런 설치 위에 안개는 계속 생기면서 시간성을 환기한다. 관객참여의 작품으로 관객은 안개 속을 거닐면서 안개의 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서용선의 <관계>는 목조 조각 위에 색채를 올린 작품이다. 거칠게 표현한 인물 표현,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 지향과 소비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군상. 그래서 단순하고 거칠게 인체를 표현했다. 진기종의 <자유의 전사>는 사실적으로 표현한 군인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는 형상이다. 이들 전사는 무기를 들고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인 미 해군 특수부대와 이슬람 신자인알 카에다 부대원. 이들은 마주 보고 앉아 대치중에 있다. 물론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고 있다. 이 작품은 사실적 표현 기량으로 리얼리즘 작품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울가의 입체작품은 개를 소재로 한 작업이다. 원래 그래피티 형식의 작업을 하는 화가의 입체 작업이다. 손정희의 <플레이 보이 맨션>은 도조 작품으로 여성성을 강조한 작업이다. 김창환은 철근과 스테인리스스틸의 상어 형상을 설치한 작품이다. 배종헌의 설치작업은 '낮은 건물속의 산수'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도시의 반 지하 건물에 살면서, 시멘트 자국 등 건축적 흔적을 주목하게 되었다. 낮은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뭔가의 흔적은 도시 속의 산수화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여 작가는 도시 속에서 감상하는 산수화를 미술관 안으로 이동시켰다. 풍자와 해학의 정신, 그러면서도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강애란의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은 고종을 비롯해 조선왕조의 자료들을 라이팅북 형식으로 설치한 작품이다. 작가는 그동안 디지털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면서 책이라는 소재를 탈물질화하여 의미변환을 기도했다. 책 형태의 색채와 빛을 활용한 구조의 집적은 신비스러

을 정도의 이색 체험을 하게 한다. 한승구의 <피부의 피부>는 동식물의 보호 기능인 미미크리(mimicry)을 원용하여 작업한 것이다. 위장과 위협의 기능을 수용한 작품이다. 임흥순의 <북한산>은 탈북 여성의 북한산 산행을 담은 비디오 작품이다. 남한에서 가수 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을 통하여 남북문제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룬 작품이다. 임흥순은 기왕에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영상작업으로 일가를 이룬 작가이다. 손봉채의 <금강산도>는 폴리카보네이트 바탕에 유화로 금강산을 그린 독특한 구성의 대작이다. 작가는 변방 사람을 주목했고, 또 이주민을 형상화했다. <금강산도>는 12폭 대작으로 LED 장치를 두어 매체의 활용을 시도한 작품이다.

쿠이 시우웬(Cui Xiuwen)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한 여성 작가이다. 그의 비디오 작품<재생>은 무채색 기조로 분절된 영역을 보여 이미지의 최소화를 지향했다. 패턴의 반복작용을 통해 소멸과 재생의 의의를 제고시키고 있다. 작가는 이번 비엔날레 개막 직전 작고하여 창원 비엔날레 출품작이 공식 유작이 되는 불행을 안았다. 미야오 샤오천(Miao Xiaochun)은 자이로 댄스(Gyro Dance)의 무용수를 3D 스캔으로 제작하고 디지털 형태로 변화시킨 작품이다. 흥미로운 인체 형상의 율동은 미디어를 활용한 색다른 시각 체험을 불러 준다. 이이남의 특별코너. <명칭회화 크로스오버>는 모니터 5대를 사용하여 중국 고전 회화를 활용하여 움직이는 변화를 주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높이 5m가 넘는 기다란 설치작업이다. 밤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고전 회화-해피니스>는 전통병풍 형식의 움직이는 도상 작품이다. 이이남의 동영상 작품은 현대기법을 활용한 전통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필요로 한다.

판화가 홍선웅은 80년대 이후 목판화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실사회를 주제로 한 작업과 별개로 서정성 짙은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작품<백령도-종이학>은 2010년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등 남북 대치사건을 다룬 것이다. <제주 4.3 진혼가>는 제주의 국가폭력에 해당하는 1948년 제주 4.3사건을 진혼(鎮魂)의 입장에서 만든 목판화이다. <산다화(山茶花)>는 서정성 짙은 작품이다. 소녀는 차를 마시고 있고, 주위에 산수유, 매화, 산다화(동백)가 만발하였다. 화제(畫題)에 '시 한 수 지으려고 여기저기 살폈더니 눈 속에 산다화가 붉게 피어 있었네.' 제주 4.3과 천안함을 거쳐 산다화로 이어온 홍선웅의 목판은 우리 시대의 단면이다. 김준권의 <풍경>은 유성다색 목판화이다. 붉은 보리밭을 소재로 한 정교한 칼질의 이색 작품이다. <산운(山韻)>은 우리 국토의 모태를 표현했다. 첩첩산중의 능선 그리고 양측에서 떠받드는 산자락 형상은 바로 곡신(谷神)의 대지 즉 자궁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48개의 판목을 이어 제작한 대작이다. 특기 사항은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을 장식했던 '역사적 작품'이다. 목판화의 승리. 이번 비엔날레 출품작으로 포토 존을 염두에 두는 작품이다. 폴란드 판화작가 크리스토프 슈마노비츠(Krzysztof Szymanowicz)의 경우도 눈길을 끈다. 윤영희의 <비상>과 <광화문>은 봉황 같은 서조(瑞鳥)를 중심으로 하여 생명성을 표현했다. 새는 모란과 같은 '귀한 꽃'이 아닌 호박꽃을 뿔어내며 광화문을 굽어보고, 아니 살펴보고 있다. 윤영희의 작품은 전통 채색화를 바탕으로 하여, 즉 민화의 현대적 접근에 의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전통 채색의 길상화는 우리 민족의 회화로 현대성을 가미할 때 폭발적인 위력을 얻을 것이다.

이정교의 설치작품은 성산아트홀의 로비를 이용한 이색작업이다. 전시실 문과 계단 등 시각

적 안정감을 맛아가는 로비를 커튼 형식의 색깔 오브제를 활용하여 공간 성격을 새롭게 구성했다. 그의 공간조각은 오브제의 결합으로 차이와 연속에 의한 장소/비장소, 의식/무의식, 존재/비존재 등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공간 해석을 새롭게 자극한다.

비엔날레 개막행사는 용지공원 포정사 앞의 임시무대에서 펼쳐진다. 특별공연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혹은 불각의 균형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우리 천연염색의 전통이다. 통도사의 성파 방장스님은 일찍이 전통 천연염색을 주목하고, 작품 활동과 더불어 염색기법의 교육에도 주력해왔다. 무엇보다 매년 봄 서운암 산자락에서 펼쳐지는 전통염색 축제는 문화 활동의 하나로 이목을 끌었다. 이에 포정사 무대는 천연염색 천들로 지붕을 만들어 출렁거리는 원색의 특별공간을 만들 것이다. 특별퍼포먼스, 바로 '염색+춤'이다. 춤꾼은 천연염색 웅덩이를 들락날락하면서 춤을 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얀 옷은 원색으로 물들게 된다. 즉흥 염색, 천연염색 퍼포먼스는 시각적 장관을 연출할 것이며 '전통문화다시 보기' 차원에서도 흥미를 이끌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운암 염색반과 음악가 이반 팀의 협업은 '유어예마당'을 빛나게 할 것이다.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불각의 균형'과 '파격'으로 새로운 미술문화에의 시도이다. 조각공원에 '놀이'의 개념을 넣어 '즐길 수 있는 조각'을 강조했고, 또 고정관념에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파격'을 주목하고자 했다. 일월오봉 병풍 거꾸로 걸기와 같은 이의제기는 논란의 대상일수 있다. 앞의 파도는 뒤에서 오는 또 다른 파도에 의해 밀려난다. 이 땅에 영원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변화 과정은 더욱 소중하다. 현장에서 펼쳐지는 염색 퍼포먼스는 상징성을 듬뿍 안길 것이다. 일기일회(一期一會)라 했다. 이 순간은 내 생애 단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비엔날레는 이런 문제를 고민한 결과의 소박한 보고라 할 수 있다. ●